

첨단의료복합단지 대전 입지 결정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458
----------	-----

발의연월일 : 2009년 3월 20일

발 의 자 : 전병배의원 외 13인

1. 주 문

-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첨단의료기술이 집적화 되어 있고, 첨단기술간 융·복합화가 가능하면서 대전시민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조성하여 대한민국 첨단의료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입지 결정시 '대전광역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줄 것을 촉구·건의함.

2. 제안이유

- 지자체간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노력이 과열 양상을 띄고 있어 정치적 압력에 의한 잘못된 입지결정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미래 의료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최적의 장소에 입지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함.
- 대덕특구는 첨단기술역량이 집적화 되어 있고, 기술분야간 융·복합화가 가능한 최적의 연구역량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최단기간에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 창출이 가능하며,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다른 지역의 산업 클러스터와도 상생(Win-Win) 발전이 가능한 지역임.
- 대전시는 시민 모두가 그 어느 지역보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및 성공을 열망하고 있어 사업 성공 가능성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임.
- 따라서 우리나라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세계 의료산업분야에서 우위를 선점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 기술개발 환경이 최적화 되어 있는 대덕특구에 선택과 집중적인 투자·지원을 통해 추진해 나가야 함.

첨단의료복합단지 대전 입지 결정 촉구 건의안

첨단의료복합단지사업은 대한민국이 의료산업 강국으로 진입하여 세계 의료산업부문을 선도해 나갈 초석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미래 비전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국가사업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대한민국 과학기술 혁신의 중심지이자, 미래 의료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최적의 장소에 입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여러 지자체의 유치 노력이 과열되어 가는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국가의 미래 선도산업을 책임질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결정이 정치적 압력으로 인한 잘못된 입지결정으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어 국가발전을 저해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성과창출 특성상 ‘균형발전’이 아닌 ‘선택과 집중’이 그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과학기술 발전의 성공 핵심 키라 할 수 있는 ‘기술 융·복합’ 추세는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을 더욱 높여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세계 의료산업분야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바로 BT와 IT, NT, RT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 기술개발 환경이 최적화 되어 있는 곳에 선택과 집중적인 투자·지원을 통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 최적의 장소가 바로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입지한 대전광역시입니다.

그 당위성으로는

첫째, 대덕특구는 우리나라의 하나뿐인 연구개발특구로서 지난 35년간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로 BT뿐만 아니라 IT, NT, RT 등의 첨단기술역량이 집적화 되어 있어 ‘첨단의료산업 발전의 필수요건인 기술분야간 융·복합화가 가능한 최적의 연구역량과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 대덕특구는 첨단의료연구분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매년 BT 관련 연구개발에 2,200억원 이상 투자되고 있고,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에 필요한 부지 확보와 함께 R&D특구 지정에 따른 국세, 지방세 감면혜택 등 이미 첨단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어 '최단기간에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 창출이 가능한 유일한 지역입니다.

셋째, 대덕특구는 첨단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Hub & Spoke 전략이 가능한 최적지로서 충남·북의 IT산업과 BT산업 기반을 활용해 의료산업을 대한민국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등 '다른 지역의 산업 클러스터와도 상생(Win-Win) 발전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넷째, 대전시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대덕특구 유치지원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시민 125만이 서명한 바 있으며, 대내외적으로는 해외 우수 BT 관련 연구기관 유치, 각종 포럼 및 국제학술회의 개최 등을 통해 관심과 분위기를 점차 확산시켜 나가는 등 그 어느 지역보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성공 및 기대를 열망하고 있어 '사업 성공의 가능성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이렇듯 우리 150만 대전시민 모두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대덕특구에 건설하는 것이 '선택과 집중', '기술 융·복합', '既 구축된 인프라 활용', 그리고 '대전시민의 전폭적 지원과 관심'을 통해 미래의 대한민국 성장동력인 첨단의료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육성을 위해 정부의 합리적이면서 올바른 입지결정 판단과 함께 '대전광역시'가 입지 결정시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건의합니다.

2009. 3. .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첨단의료복합단지 대전 입지 결정 촉구 전의안

찬성 의원 서명

의원명			서명	비고
전	민	민	20000	
박	수	민	박수민	
양	승	민		
권	형	민		
김	재	경		
이	신	형		
조	신	형		
홍	재	웅		
이	성	희		
김	민	숙		
김	희	준		
박	희	진		
곽	영	고		

수 신 처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기획재정부 장관
4.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5.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6. 지식경제부 장관
7. 국토해양부 장관
8.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
9. 국무총리실장
10. 국회의장
11.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12.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
13.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14. 국가정보원장
15. 한나라당 대표
16. 민주당 대표
17. 자유선진당 대표
18. 민주노동당 대표
19. 창조한국당 대표
20. 국가균형발전위원장
21. 국토연구원장